

종합·해설

4·11 총선 최대 격전지 '낙동강 벨트'를 가다

‘盧風’ 대 ‘朴風’ 누가 셀까 ‘뱃사공’도 몰라

4·11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낙동강 벨트'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낙동강 전투'에 나선 여야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야 대표들의 지원 목적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문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세를 점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보수색이 짙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부산 유권자들이 20대인 손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의문이다.

선거 최대 쟁점은 부산경제 활성화 민주·문·성·길 트리오 선전여부 따라 총선 전체 판도 좌우...대선까지 영향 興野 "지켜라" "뚫어라" 퇴로없는 혈전

치(R&R) 조사에서는 문 최고위원(36.8%)과 김 후보(28.5%)의 지지율 격차가 8.3%포인트로 좁혀졌다. 부산 진을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새누리당의 이현승 전 부산시 대외협력과장이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바람이 우세하느냐에 달려있다. 20대~40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향수가 아직 남아 있는데다 현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우세 가능성도 있다.

각하의 시민이 많은데다 사실상 20여 년간 일당독주를 해온 지역 정치구도에 염증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며 "따라서 '박풍'과 '노풍' 중 어느 바람이 투표 당일까지 이어지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부산 경제 침체를 현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는 점을 공략하고 있다. 부산이 20년간 밀어붙였던 새누리당은 부산을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오라카락하며 혼선과 지역간 갈등만 부추켰던 동남권 신흥항 유치도 광역이 될 전망이다.



부산에 이는 바람 민주통합당의 '문성길·문재인·김정길' 트리오가 연합전선을 편 채 새누리당 텃밭을 공략하면서 낙동강 벨트의 민심이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다. 세 후보의 선거사 무실에 내걸린 후보 플래카드. /부산=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무안·신안 이윤석 후보 확정

지난 16일 실시된 민주통합당 무안·신안, 서울 양천구를 등 5개 지역에 대한 5차 경선에서 이윤석 의원과 이용선 전 공동대표 등이 후보로 확정됐다.

보를 꺾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지역구인 서대문구에서는 김영호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각각 승리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구에서는 일방적인 야권단일화에 반대하며 수면제를 복속했던 고연호 서울시장 대변인이 승리해 통합진보당 천호선 대변인이 야권단일화 경선을 치렀다.

바로잡습니다 광주일보 16일 자 3면 '4·11 총선 광주·전남지역 대진표 유력' 기사 내용중 무안·신안 부분의 '경선에서 승리한 이윤석 의원은'은 '이윤석의 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 간 경선 대결의 승자'의 오기(誤記)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이날 잘못된 기사 때문에 무안·신안·목포 등 전남 일부 지역에 신문 배달이 차질을 빚은 데 대해 독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 민주·문·성·길 트리오 인터뷰 /

문재인 (부산 사상)

문성근 (부산 북·강서울)

김정길 (부산 진을)

“부산 민심속으로 더 다가가야죠”

“20년 새누리당 독점정치 깨겠다”

“민주당 바람 부산·경남 전역 확산”

민주통합당 문재인(부산 사상) 예비 후보는 18일 "새누리당 후보가 결정되면서, 새누리당 세 걸음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 사상구 이마트 정문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문 후보는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부산에서 나와 민주당이 상대하는 것은 새누리당 후보가 아닌 새누리당 세력과 그 지지기반"이라며 "후보들과 상관없이 그 세력은 막강한 만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문성근(부산 북·강서울) 최고위원은 18일 "부산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인식은 낮지만, 김두관 경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입 등으로 민심이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이 붕괴하고 부산 경제가 침체하면서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20년간의 (한나라당) 일당 독점에 따른 경쟁 실패로 정치적 신뢰가 붕괴하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김정길(부산 진을) 예비후보는 18일 "부산의 중심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면 그 바람이 부산·경남 전역으로 확산하고, 총선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부산 진을 선거구에서 부산의 문화·경제 중심지인 탓에 보수층이 강하지만, 이를 많이 극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Cartoon titled '빛의만정' (Light's Manjeong) by Kim Jeong-gil, depicting a character with a speech bubble about the election.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JTB (롯데제이티비) featuring travel packages, hotel deals, and various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promotional offers.